

위기를 기회로...KIA, 세대교체 본격 시동

최형우, 2년 26억에 삼성행
전력 재정비로 바닥 다지기
지명타자·애크터 활용 고심



박찬호와 최형우를 떠나보낸 KIA 타이거즈가 원점에서 '양조 재건'을 위한 바닥을 다진다.

최형우가 3일 삼성 라이온즈와 FA(자

유계약선수) 계약을 하면서 '고향팀'과의 인연을 마무리하고 '친정팀'으로 돌아간다.

삼성은행은 이날 "계약기간 2년, 인센티브를 포함한 총액 26억원에 계약을 했다"고 최형우의 FA 영입을 발표했다.

2016년 11월 삼성을 떠났던 최형우의 친정 복귀다.

전주고 출신의 최형우는 2002년 2차 6라운드 전체 48순위로 삼성에 입단해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2004시즌이 끝나고 방출됐던 그는 경찰야구단을 거쳐 2008년 삼성에 재입단해 팀을 대표하는 간판 타자로 성장했다.

그리고 2016시즌이 끝난 뒤 첫 FA 자격을 얻은 그는 KIA와 4년 총액 100억원에 계약을 맺으면서 KBO리그 첫 '100억 사나이'로 이름을 올렸다.

최형우는 2020시즌이 끝난 뒤 KIA와 3년 총액 47억원에 두 번째 FA계약에 성공했다.

세골 분쇄 골절 부상을 입고 다시 그라운드에선 그는 지난해에는 1+1년 총액 22억(연봉 20억·옵션 2억)에 다년 계약을 맺었고, 올 시즌에도 최고령 기록들을 갈아치우는 기염을 토했다.

하지만 내년 시즌 우승을 노리는 삼성이 공격적으로 베테랑 영입에 나섰고, 최형우는 자신의 역사가 시작됐던 삼성에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게 됐다.

내야의 핵심 멤버였던 박찬호에 이어 최형우가 이적을 선택하면서 KIA는 '새 얼굴'로 '새 판'을 짜게 됐다.

경험이 필요한 유격수 자리는 아시아쿼터를 활용해 채울 계획이다. 올 시즌 풀타임을 소화한 김규성과 함께 '기대주' 박민·정현창도 많은 기회를 얻을 전망이다.



KIA 타이거즈의 이범호 감독(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11월 일본 오키나와에서 진행된 마무리캠프에서 한준수, 김현수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는 또 최형우의 이적으로 생긴 '지명타자' 자리를 최대한 활용에 화력 공백을 채우겠다는 구상이다.

KIA는 올 시즌 야수진의 줄부상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특히 김도영이 연달아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충격이 컸다.

이범호 감독은 시즌 초반 김도영을 지명타자로 배치하는 등 '부상 방지'에 초점을 맞춰 완벽한 시즌을 보낼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또 매년 부상에

시달리고 있는 나성범과 김선빈도 지명타자로 활용하면서 전력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김선빈과 나성범을 지명타자로 배치하면서 신예 선수들의 경험을 채우는 게 이범호 감독의 구상이다.

김선빈을 이은 2루수로 타격 기대주 윤도현을 주목하는 KIA는 지명타자 자리를 최대한 활용에 원활한 세대교체를 준비할 계획이다.

외야는 새 외국인 타자로 힘을 더하고, 기존 외야

자원에 새 얼굴로 스피드를 업그레이드하겠다는 방침이다. 눈길 끄는 스피드를 보유한 박재현과 마무리 캠프서 공수주에서 어필 무대를 펼친 '루키' 김민규가 스프링캠프에서부터 특별 조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올 시즌 가장 꾸준하게 자리를 지켜줬던 박찬호와 최형우가 자리를 비우면서 KIA는 두 선수의 빈틈을 채우는 걸 우선 과제로 새 시즌 구상을 하게 됐다.

두 축의 이탈로 고민은 생겼지만 신예 선수들에게는 '기회의 시즌'이 열렸다. 지난 6월 '함평 타이거즈'의 힘을 보여줬던 신예 선수들의 활용도에 따라 KIA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도 있다. 위기가 위기로 끝날 수 있는 만큼 세밀한 준비가 중요해졌다.

구단과 이범호 감독의 위기 대처 능력이 내년 시즌 KIA의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도영 재기할까...WBC 1차 사이판 캠프 합류

41세 노경은·38세 류현진 등 명단 발표...해외파 합류는 추후 결정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8·한화)이 2026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을 대비한 1차 사이판 훈련 캠프에 합류한다.

'불혹의 홀드왕' 노경은(41·SSG)과 올해 세 차례 햄스트링 부상으로 고전한 우타 거포 김도영(22·KIA)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KBO는 3일 "강화위원회가 2026 WBC 1차 캠프에 참가할 국내 선수 명단을 확정했다. 1차 캠프는 투수 16명, 야수 13명으로 구성했다"며 "내년 1월 9일부터 21일까지 사이판에서 열리는 1차 캠프는 WBC가 시즌 시작 전에 열리는 대회라는 특성을 고려해 선수들이 대회 시작에 맞춰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를 치르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전했다.

눈에 띄는 이름은 류현진과 노경은, 그리고 김도영이다.

류현진은 올해 9승 7패, 평균자책점 3.23을 올렸다. 류현진보다 좋은 평균자책점을 찍은 도중 투수

는 임찬규(LG·3.03)뿐이었다.

류현진은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09년 WBC,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 출전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던 2013~2023년까지는 국제대회에 출전하지 못했던 류현진은 30대 후반에도 정상급 기량을 유지해 2026 WBC 출전 가능성을 키웠다.

류현진이 2026 WBC 대표팀에 뽑히면,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16년 만에 태극마크를 달고 마운드에 선다.

노경은은 올해 KBO리그에서 3승 6패 3세이브, 35홀드, 평균자책점 2.14로 호투했다.

일본과의 평가전에서 젊은 불펜진이 고전하는 모습을 본 류현진 대표팀 감독은 베테랑 노경은을 1차 캠프 명단에 포함했다.

거듭된 햄스트링 부상으로 올해 쓴 맛을 본 김도영의 부활 여부도 관심사다.

폭발적인 장타력과 기민한 발을 앞세워 2024년 프로야구를 평정한 김도영은 올해에는 불과 30경기에만 출전한 뒤 치료와 재활로 내년 시즌을 버리고 있다.

류현진 대표팀 감독은 따뜻한 사이판에서 치르는 1차 캠프 때 김도영의 기량을 점검한 뒤 최종 엔트리 발탁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1차 캠프 명단에는 'KBO리그 우승팀' LG가 가장 많은 8명을 배출했다.

롯데에서는 한 명도 뽑히지 않았다.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김해성(로스앤젤레스 다저스), 김하성(자유계약선수) 등 현역 빅리거의 사이판 훈련 합류는 미정이다.

KBO는 "국외파 선수들의 1차 캠프 합류 여부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KBO는 3일 WBC에 예비 명단(35명)을 제출했으며, 명단은 조직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

최종 명단 30명은 2월 3일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한화 '원투 펀치' 폰세·와이스 MLB행

올 시즌 프로야구 정규시즌에서 33승을 합작해 한화 이글스를 한국시리즈(KS) 무대로 이끌었던 '원투 펀치' 코디 폰세(31·사진)와 라이언 와이스(28)가 나란히 미국 메이저리그(MLB) 무대에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ESPN은 3일 오른쪽 투수 폰세가 토론토 블루제이스 구단과 3년 총액 3000만달러(약 440억원)의 조건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폰세는 2025년 프로야구를 지배한 투수였다. 29경기에 선발로 등판해 180.2이닝을 던지며 17승 1패, 승률 0.944, 평균자책점 1.89로 활약했다.

개막 후 선발 17연승, 단일 시즌 탈삼진(252개), 단일경기 정규이닝(9이닝) 최다 탈삼진(18개) 등 수많은 신기록을 수립하고 외국인 투수 최초의 투수 4관왕에 올랐다.

KBO리그 최우수선수(MVP)도 폰세의 몫이었다.

토론토는 폰세에게 의미 있는 곳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출신인 폰세는 학창 시절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이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소속으로 활약하는 장면을 지켜보며 야구선수의 꿈을 키웠다.

류현진과 함께 한화에서 뛰며 존경심을 여러 번 드러냈고, 올스타전에서는 류현진의 전 소속팀인 토론토 유니폼을 입고 등장하기도 했다.

한화 소속 선수로는 류현진 이후 19년 만에 KBO MVP를 품은 폰세는 류현진이 몸담았던 토론토 입단을 눈앞에 뒀다.

토론토는 올 시즌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에 오른 강팀이다.

올해 한화에서 16승을 거둔 오른쪽 투수 와이스도 MLB 진출을 눈앞에 뒀다.



MLB 인터넷 홈페이지는 "휴스턴 애스트로스 가 와이스와 계약에 사실상 합의하고 현재 메디컬 체크를 진행 중"이라며 "다만 이는 구단이 확인한 사실은 아니고, 정통한 관계자로부터 들은 내용"이라고 전했다.

1996년생 와이스는 2024시즌 도중 한화 유니폼을 입었으며 올해는 30경기에 나와 16승 5패, 평균자책점 2.87을 기록했다.

정규시즌 통산 성적은 21승 10패, 평균자책점 3.16이다. 특히 올해 LG와 한국시리즈 4차전에 선발로 나와 7.2이닝 탈삼진 7개, 1실점으로 호투했다.

와이스는 MLB 경력은 없으며 마이너리그 트리플 A에서 통산 6승 4패, 평균자책점 6.72를 기록했다.

한편 한화는 지난달 새 외국인 투수 월켈 에르난데스를 영입했으며, 외국인 타자는 2024시즌에 뛰었던 요나탄 페라자로 확정해 외국인 선수 3명 중 1명의 자리만 남았다.

/연합뉴스

'FA 협상' 빌미 금품 요구 장정석 전 KIA 단장 무기실적

KBO, 김종국 50경기 정지·봉준근 봉사 징계

선수에게 자유계약선수(FA) 협상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장정석 전 KIA 타이거즈 단장이 퇴출에 준하는 '무기 실격' 처분을 받았다.

구단 후원사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김종국 전 KIA 감독은 KBO리그 복귀 시 '출장정지 50경기'와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의 징계를 받아야 한다.

최근 SSG 랜더스가 코치로 영입한 봉준근은 과거 전동 키보드 음주운전에 관한 징계로 '봉사활동 40시간' 처분을 받았다.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은 지난 10월 배임수재 등 혐의에 관해 대법원으로부터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둘은 2022년 10월 외식업체 대표 A씨에게 광고 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감독은 그해 7월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와 관련한 편의 제공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가 건넨 돈은 표현이나 수수 형식·경위 등을 볼 때 KIA 구단에 대한 후원자로서 격려금 차원에서 지급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A씨가 청탁을 위해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건넸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적인 처벌은 피했지만, 야구계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이 'KBO리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했다고 봤다.

KBO가 극적으로 실격 처분을 철회하지 않는 한, 장정석 전 단장은 KBO리그에서 일할 수 없다.

/연합뉴스

